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 그린플러스(186230)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 성 자 박진희 책임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린플러스(186230)

첨단온실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보유한 통합형 스마트팜 전문기업

## 기업정보(2026.05.21 기준)

대표자	박영환, 정순태
설립일자	1997년 10월 25일
상장일자	2019년 8월 7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주요제품	스마트팜, 알루미늄 압출제품 등

## 시세정보(2026.05.21 기준)

현재가(원)	4,13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451
발행주식수	10,920,188주
52주 최고가(원)	8,340
52주 최저가(원)	3,900
외국인지분율	2.36%
주요주주	박영환 외 8인

### ■ 스마트팜 시공 역량과 알루미늄 자재 생산을 결합한 첨단온실 기업

그린플러스(이하, 동사)는 알루미늄 압출·가공 역량을 기반으로 산업용 소재와 스마트팜 온실 자재·시공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시공 복합형 기업이다. 2025년 기준 스마트팜 사업이 핵심 매출원이고, 알루미늄 사업은 온실자재 생산과 산업재 공급을 뒷받침한다. 양식·작물재배 자회사는 스마트팜 운영 데이터를 축적해 자재와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는 실증 기반으로 기능한다. 동사는 온실시공능력평가 상위 지위와 자재 생산 내재화를 기반으로 시공, 사후관리, 교육·컨설팅, 해외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 ■ 스마트농업 확산과 데이터 기반 온실 고도화 수요에 대응하는 첨단온실 인프라 시장 성장세

목표시장은 첨단온실 기반 스마트팜 시공 및 온실자재 시장으로,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대응 수요를 배경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정부 지원과 공공 프로젝트가 주요 수요 기반을 형성한다. 시장에서 경쟁력은 자재 생산, 온실 설계, 환경제어, 운영 데이터, 사후관리 역량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동사는 스마트팜 시공 경험과 알루미늄 자재 생산 역량, 실증 데이터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첨단온실 구축 수요 확대에 대응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알루미늄 산업재와 해외 기후 대응형 온실 시장으로 다변화 시도 중

동사는 스마트팜 첨단온실 시공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알루미늄 산업재와 해외 기후 대응형 온실로 성장 축을 다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공·지자체 중심의 스마트팜 프로젝트 수요가 주요 기반이며, 알루미늄 사업은 방산, 발전소, 전기차, 중동 에너지 인프라용 자재 수요가 부각되면서 기존 범용 압출재 중심에서 고부가 산업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해외 스마트팜은 실증 경험과 고온 지역 대응 기술을 바탕으로 동남아·중동·중남미 등 적도 벨트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588.7	-6.0	-82.1	-13.9	-153.3	-26.0	-26.2	-15.1	110.9	-1,183	3,940	N/A	2.1
2024	876.8	48.9	24.9	2.8	2.6	0.3	1.7	0.3	119.3	66	3,982	113.4	1.9
2025	1,057.2	20.6	-9.5	-0.9	-130.3	-12.3	-26.4	-13.2	158.6	-991	3,767	N/A	1.6

기업경쟁력

스마트팜 시공 중심의 ONE-STOP-SERVICE 사업 수행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온실의 기획, 설계, 자재 제작, 시공, 운영을 일괄 수행하며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통합 구축할 수 있는 역량 보유</li> </ul>
알루미늄 자재 생산 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루미늄 압출·가공 설비와 금형 기반을 활용해 온실 구조재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납기, 품질, 현장 맞춤 대응력 확보</li> </ul>
실증 기반 사업 고도화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딸기 스마트팜과 장어 양식 스마트팜 운영 경험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온실 설계, 환경제어, 재배 시스템 개선에 활용 가능</li> </ul>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첨단온실 통합 구축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 구조, 알루미늄 프레임, 차광·환기·냉난방 설비, 양액·관수 시스템을 결합해 시설원예용 첨단온실과 임대형 스마트팜에 적용</li> </ul>
작물 생육환경 최적화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엽다운 재배장치, 근권부 냉난방, 수경재배용 양액공급 기술을 통해 시설원에 작물의 생산성과 작업 효율 향상</li> </ul>
특수기후 대응형 온실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막지역 건조, 응축수 재활용, 고온다습·취약지반 대응 기술을 기반으로 중동·동남아 등 해외 기후 맞춤형 스마트팜 적용 가능성 확보</li> </ul>

시장경쟁력

국내 공공·지자체 프로젝트 대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시공능력평가 1위 지위와 프로젝트 수행 실적을 기반으로 공공·지자체 스마트팜 발주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 보유</li> </ul>
스마트팜 시장 성장에 부합하는 사업 포지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대응 수요 확대에 따라 첨단온실 시공 및 자재 사업은 시장 성장 방향과 높은 정합성 확보</li> </ul>
해외 기후 대응형 시장 진입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호주, UAE 등 해외 실증 경험과 특수기후 대응 기술을 바탕으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고온 지역 스마트팜 시장 진입 추진 중</li> </ul>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p>가치(Value)</p>	<p>희소성(Rarity)</p>	<p>모방가능성(Imitability)</p>	<p>조직(Organization)</p>
<p>• 스마트팜 시공 역량, 알루미늄 온실자재 내재화, 실증 데이터 기반 운영 경험은 첨단온실 수요 확대와 원가·납기 대응 측면에서 사업적 가치를 보유한다.</p>	<p>• 온실 설계·시공, 알루미늄 자재 생산, 환경제어 시스템 적용, 실제 재배·양식 운영 경험을 함께 보유한 기업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동사의 역량은 일정 수준의 희소성을 가진다.</p>	<p>• 개별 기술과 설비는 모방 가능하나, 장기간 축적된 시공 경험, 금형·자재 대응 능력, IP, 운영 데이터 기반 피드백 구조를 단기간에 복제하기는 쉽지 않다.</p>	<p>• 스마트팜 시공 조직, 알루미늄 생산설비, 기업부설연구소, 자회사 운영 기반을 통해 보유 자원을 사업화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p>

## I. 기업 현황

### 스마트팜 시공 역량과 알루미늄 자재 생산을 결합한 첨단온실 전문기업

동사는 알루미늄 압출·가공 역량을 기반으로 산업용 소재와 스마트팜 온실 자재·시공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시공 복합형 기업이다. 2025년 기준 스마트팜 사업이 핵심 매출원이고, 알루미늄 사업은 온실자재 생산과 산업재 공급을 뒷받침한다. 양식·작물재배 자회사는 스마트팜 운영 데이터를 축적해 자재와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는 실증 기반 역할을 수행한다. 동사는 온실시공능력평가 상위 지위와 자재 생산 내재화를 기반으로 시공, 사후관리, 교육·컨설팅, 해외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 ■ 기업 개요

동사는 1997년 10월 알루미늄 제품, 온실용 자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9년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다. 본사는 충남 예산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압출·가공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온실 자재와 시공 사업을 결합한 제조·시공 복합형 기업으로 볼 수 있다.

동사의 핵심 사업모델은 알루미늄 압출제품 제조 및 판매와 스마트팜 온실 자재 제조 및 시공이다. 알루미늄 사업은 압출 및 가공 제품을 전자, 자동차, 항공, 방산 등 산업용 소재로 공급하는 구조이며, 스마트팜 사업은 첨단온실의 기획, 설계, 자재 제작,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원스톱 서비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스마트팜 사업은 온실 구조물뿐 아니라 양액시스템, 환경제어시스템, 자동관수시설 등 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를 포함한다.

동사는 13인치, 7인치, 6인치 알루미늄 압출기를 보유해 대형재부터 중·소형 온실자재까지 생산할 수 있고, 일부 스마트팜 자재를 자체 조달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1년~2025년까지 15년간 한국농업시설 협회로부터 온실시공능력평가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국내 대형 딸기 스마트팜과 장어 양식 스마트팜을 자회사로 운영하며, 운영·마케팅·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시공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주요 고객군은 알루미늄 압출재를 필요로 하는 건설·산업재 수요처와, 스마트팜 온실 구축을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법인, 민간 농가 및 해외 스마트농업 수요처로 구성된다. 동사의 경쟁력은 알루미늄 자재 생산 능력과 스마트팜 시공 역량의 결합, 온실시공능력평가 1위 실적, 스마트팜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피드백 구조에 있다. 향후 동사는 스마트팜 시공 중심 사업에서 운영 지원, 교육, 컨설팅, 해외 시공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일시	내용
1997.10	(주)그린플러스 설립
2010.12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17.08	전기공사업 면허취득
2019.08	코스닥시장 상장
2020.09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주관기관 선정
2022.03	Green Plus KT Co., Ltd 설립
2023.01	Green Plus AUS Pty Ltd 설립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주 현황

2025년 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박영환으로, 보통주 발행주식(10,920,188주) 중 2,396,376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지분의 21.94%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성화 외 7인의 특수관계자가 1,126,585주(10.32%)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약 32.26%로 확인된다. 한편, 동사는 80,000주(0.73%)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7,317,227주(67.01%)는 소액주주 등 일반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동사의 지배구조는 창업자 및 특수관계인 중심의 안정적 지분 구조와 높은 소액주주 비중이 병존하는 형태다. 이는 경영권 측면에서는 최대주주 측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반면, 유통주식 비중이 높아 시장 수급과 주가 변동성에 대한 노출도 존재함을 의미한다. 한편, 2025년에는 상환전환우선주 689,655주가 소각되면서 우선주 발행주식 수가 344,827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자본구조의 변화로 잠재적인 지분 희석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잔여 우선주의 전환 가능성은 향후 주식 수 변동 요인으로 남아 있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박영환	2,396,376	21.94%	최대주주
이성화 외 7인	1,126,585	10.32%	특수관계인
자기주식	80,000	0.73%	
기타 주주	7,317,227	67.01%	
합계	10,920,188	10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의 사업 영역은 크게 알루미늄 사업, 온실 사업, 양식 사업, 작물재배 사업으로 구분된다.

알루미늄 사업은 동사의 기반 사업으로 알루미늄 소재의 압출 및 가공 제품을 생산하며, 2025년 압출 매출은 340.8억 원, 가공 매출은 31.3억 원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온실자재 자체 생산의 기반이자 외부 산업재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원재료 가격과 전력요금 변동에 민감하고, 완전경쟁에 가까운 산업 구조상 가격 경쟁 압력이 존재한다.

온실 사업은 동사의 핵심 성장 사업으로, 2025년 온실 자재 매출은 163.4억 원, 온실 시공 매출은 416.1억 원, Green Plus AUS Pty Ltd의 온실 사업 매출은 1.5억 원으로 확인된다. 온실 시공은 프로젝트형 매출 구조를 가지며 공공 발주, 지방자치단체 스마트팜 조성사업, 민간 농업법인 수요와 연계된다. 동사는 온실시공능력 평가에서 2025년에도 1위를 기록하였고, 이는 공공·민간 입찰에서 신뢰도와 수주 경쟁력에 기여하는 요소다.

## 그린플러스(186230)

양식 사업과 작물재배 사업은 본업 대비 보조적 성격이 강하지만, 스마트팜 운영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다. 그린피시팜은 장어 양식 및 판매를, 그린케이팜은 딸기와 엽채류 재배 및 판매를 영위한다. 이들 사업은 단순한 매출 창출 수단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팜 시공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확보해 자재와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는 실증 기반으로 기능한다. 동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알루미늄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시공을 확대하고, 운영·교육·컨설팅으로 후방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표 3] 동사의 주요 제품 매출실적

(단위 : 억 원, %)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알루미늄 사업	308.0	52.3%	338.6	38.6%	372.1	35.2%
온실 사업	261.9	44.5%	450.3	51.4%	581.0	55.0%
양식 사업	11.3	1.9%	60.2	6.9%	54.3	5.1%
작물재배 사업	7.5	1.3%	27.7	3.1%	49.8	4.7%
합계	588.7	100.0%	876.8	100.0%	1,057.2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의 판매 방식은 일반 소비재형 영업보다는 기술 기반 프로젝트형 영업에 가깝다. 알루미늄 사업은 고객별 재질, 규격, 형상, 중량이 상이한 다품종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구조로, 고정 거래처와 산업용 수요처를 대상으로 품질, 납기, 단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매출을 창출한다. 스마트팜 사업은 온실 설계, 자재 제작, 시공, 시스템 설치가 결합된 프로젝트 수주형 사업으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농업법인 발주와 민간 시설 투자 수요가 주요 매출원이다.

동사의 고객 확보 구조는 기술 실적과 시공 능력에 기반한다. 스마트팜 부문에서는 한국농업시설협회의 온실시공능력평가 1위라는 지위가 공공 및 민간 입찰에서 홍보 효과와 가산점 부여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동사는 일본, 호주, 우즈베키스탄 수출 경험, 온실 자재 자체 생산, 다수의 스마트팜 자재용 프로파일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 등을 경쟁 요소로 언급한 바 있다.

매출 발생 구조는 알루미늄 압출·가공 제품 판매와 스마트팜 프로젝트 진행률에 따른 공사수익 인식으로 구분된다. 온실 시공은 공사 기간, 기성 청구, 공공 예산 집행 시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출 인식의 변동성이 존재하고, 온실산업은 동절기 시공 제약과 1~2월 신규 수주 감소 경향이 있어 계절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동사는 자체 자재 조달과 설계·시공 역량을 결합해 원가 통제와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향후 사후관리, 교육, 컨설팅 서비스까지 연결해 고객 생애주기 매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II. 시장 동향

### 스마트농업 확산과 데이터 기반 온실 고도화 수요에 대응하는 첨단온실 인프라 시장 성장세

목표시장은 첨단온실 기반 스마트팜 시공 및 온실자재 시장으로,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대응 수요를 배경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정부 지원과 공공 프로젝트가 주요 수요 기반을 형성한다. 시장에서 경쟁력은 자재 생산, 온실 설계, 환경제어, 운영 데이터, 사후관리 역량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동사는 스마트팜 시공 경험과 알루미늄 자재 생산 역량, 실증 데이터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첨단온실 구축 수요 확대에 대응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스마트팜 시공 시장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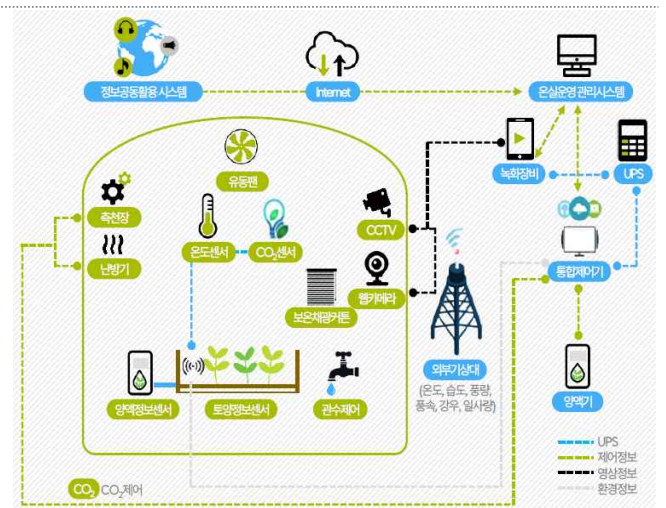
동사의 목표시장은 주력 사업과 직접 연결되는 첨단온실 기반 스마트팜 시공 시장으로, 온실 구조물, 복합환경 제어기, 양액공급기, 관수 시스템, 센서, 제어 소프트웨어, 시공 엔지니어링이 결합된 농업 인프라 시장이다. 수요는 시설원예 농가, 농업법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 해외 기후적응형 농업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발생한다. 특히 국내 시장은 민간 농가의 자발적 투자만으로 수요가 형성되기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청년농 육성 정책과 연동되는 구조를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2029년까지 전국 온실 5만 5,000ha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시장 구조는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가 병존하는 형태다. 스마트팜은 신성장 산업이자 정부 지원 산업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자동화·지능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농업 규모가 크지 않고, ICT 활용 역량을 갖춘 농업 인구가 제한적이며, 초기 시설투자 부담이 높다는 점은 시장 확산의 제약 요인이다.

진입장벽은 단순 시공 면허보다는 기술 통합 역량에서 형성된다. 스마트팜은 센서, 제어기, 데이터 플랫폼, 양액·관수 장비, 냉난방·환기 설비, 작물 생육 알고리즘이 결합되는 산업이므로,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기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의 결합이 요구되면서, 단순 온실 시공업체와 통합형 스마트팜 기업 간 경쟁력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가격 측면에서 스마트팜 시공 시장은 자재비, 외주비, 인건비, 공공 발주 단가, 공사 기간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온실시공은 프로젝트 단위로 매출이 인식되는 특성이 있어 수주 시점과 기성 진행률에 따라 실적 변동 가능성이 있다. 기술 측면에서는 기존 단순 온실 구조물 중심에서 복합환경제어, 데이터 기반 재배관리, 에너지 절감, 기후적응형 설계, 수출형 표준 패키지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경쟁력은 단순 시공단가보다 자재·설계·제어·운영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스마트팜의 구성



자료: 동사 IR자료(2024.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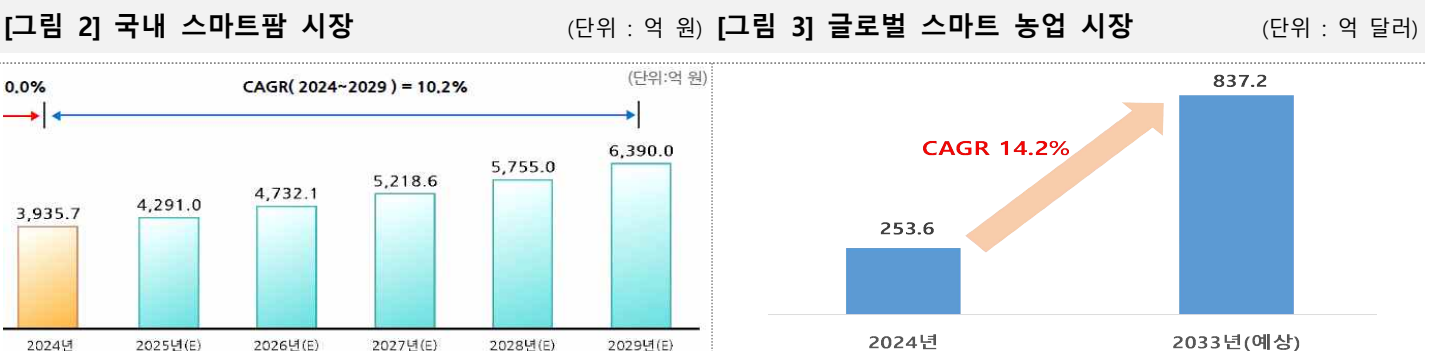
스마트팜 시공 시장의 핵심 성장 요인은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이상기후, 식량안보, 농업 생산성 개선 요구다. 국내 농업은 노동력 부족과 농가 고령화로 생산 기반의 자동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안정적인 재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원예와 환경제어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스마트농업을 농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정책으로 설정한 점도 시장 성장의 주요 배경이다.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 전문교육기관 확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어, 단순 설비 보급을 넘어 교육·운영·서비스 생태계까지 확대하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스마트팜 시장은 2024년 3,935.7억 원에서 연평균 10.2%로 성장하여 2029년에는 6,3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Grand View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 농업 시장은 2024년 253.6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33년까지 연평균 14.2%의 성장이 예상된다.

폐쇄된 온실 내부의 생육환경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컨트롤 로직과 제어 알고리즘이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기본 농업용 장비인 환기, 순환팬, 제습, 냉난방, 이산화탄소 공급, 양액공급, 보온커튼, 차광막 등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되면서 온실 설비는 지능화·고급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의 경쟁력도 단순 온실 구조물 시공 능력에서 자재, 제어, 운영 데이터, 사후관리 역량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가장 직접적인 성장 요인이다.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은 비료, 물, 노동력 등 투입 자원을 최소화하면서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며, 스마트팜은 이를 구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정보화 인식 부족, 기술 표준화 부족, 원천기술 부재 등은 국내 시장의 한계이나, 센서·계측장비의 국산화와 표준형 플랫폼 확산은 시장 확대를 촉진하는 요인이다.

국내 스마트팜 시장이 정부 지원과 농업 자동화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세계 시장은 국내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기회요인이다. 동사는 스마트팜 시공 경험, 온실자재 생산 능력, 자회사 운영을 통한 실증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첨단온실 구축 수요 확대에 대응 가능하며, 데이터 기반 운영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실제 온실 운영 경험과 시공 경험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의 차별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국내 스마트팜 시장이 도입기 성격이 강하고, 농업 분야의 수익성이 낮은 편으로 민간 투자 확산 속도가 제한될 수 있다. 초기 투자비 부담, ICT 활용 가능 농업 인구 부족,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은 시장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또한 정부 정책과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예산 집행 및 발주 일정에 따라 수주 및 매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사는 시공 실적 확대와 함께 데이터 기반 운영지원, 유지보수, 교육·컨설팅 등 후속 서비스를 강화해 프로젝트형 매출의 변동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자료: TDB 시장정보, Grand View Research,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III. 기술분석

#### 알루미늄 자재 내재화와 환경제어 기술을 결합한 통합형 스마트팜 구축 역량 보유

동사는 첨단온실 설계, 알루미늄 자재 제작, 시공, 환경제어 시스템 설치를 통합 수행하는 스마트팜 구축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알루미늄 온실자재 내재화와 양액·관수·복합환경 제어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팜 인프라를 패키지화하고 있으며, 고온다습·사막기후 대응형 온실과 데이터 기반 운영지원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온실 구조, 식물재배 시스템, 수경재배, 특수기후 대응형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과 온실시공능력은 동사의 수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판단된다.

####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징점

동사의 핵심 보유기술은 첨단온실의 설계, 알루미늄 자재 제작, 시공, 환경제어 시스템 설치를 통합 수행하는 스마트팜 구축 기술로 요약된다. 동사는 온실 구조물 자체를 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물 재배에 필요한 양액공급, 자동관수, 복합환경 제어, 차광·환기·냉난방 시스템을 결합해 시설원예용 스마트팜을 구현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개별 장비 공급보다 온실 인프라 전체를 패키지화해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성된다.

동사의 차별성은 스마트팜 시공 역량과 알루미늄 압출·가공 역량의 결합에 있다. 13인치, 7인치, 6인치 압출기를 기반으로 대형 구조재부터 중·소형 온실자재까지 생산할 수 있으며, 3,000벌 이상의 금형을 활용해 고객별 온실 사양에 맞춘 자재 대응이 가능하다. 이는 외부 조달 의존도를 낮추고, 설계 변경이나 현장 조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스마트팜 기술 측면에서는 엷다운 재배장치, 근권부 냉난방 시스템, 온실 지붕 및 차광 구조, 경질필름 고정장치, 양액·수경재배 시스템 등 시설원예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군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재배 공간의 효율화, 온실 내부 환경 안정화, 작업 편의성 개선, 에너지 효율 제고와 관련된 기술이 다수 축적되어 있어, 동사의 스마트팜 기술은 단순 구조물 시공보다 작물 생육환경 최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외 기후 대응형 온실 기술도 동사의 주요 특징점이다. 사막 지역 온실의 반밀폐형 공조시스템, 응축수 재활용 시스템, 근권부 열교환파이프 고정장치, 고온다습 및 취약지반용 작물 재배시스템 등은 중동·동남아 등 고온·건조 또는 고온다습 환경에서의 스마트팜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는 국내 시설원예 중심 기술을 해외 기후 조건에 맞게 확장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또한 동사는 딸기 스마트팜과 장어 양식 스마트팜을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실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온실 설계, 재배 시스템, 환경제어 방식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시공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시 설계와 시공에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실증 기반은 스마트팜 시공 경험과 운영 경험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동사의 기술적 차별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판단된다.

[그림 4] 동사의 딸기 및 장어 스마트팜



자료: 동사 홈페이지,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 연구개발 역량

동사의 연구개발활동은 스마트팜 온실의 구조 고도화, 기후 대응형 패키지 개발, 환경제어 기술 개선, 데이터 기반 운영지원 역량 확보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에는 온실 구조와 자재 최적화를 중심으로, 기존 온실의 낮은 측고,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도입 한계, 난방비 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온실 구조 및 자재 설계를 보완하고, 온실 내 환경조절 시스템 가이드라인과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수출형 스마트온실 패키지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고온다습형 스마트온실 패키지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재 내구성, 냉방패키지 성능, 단위기술 표준화, 국산화 수준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현지 기후에 맞춘 표준형 스마트온실 모델을 구축해 반복 적용 가능한 수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중동 및 사막기후 대응형 연구도 진행하고 있으며, 사막지역의 온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및 현장 실증을 통해 현지 기후와 풍하중을 고려한 구조 안정성, 내부 온·습도 개선, 작물 생육특성, 시공성, 성능평가 등을 검증하고 있다. 이는 사막기후 적응형 온실 리모델링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중동지역 스마트팜 수출 시 기술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로 해석된다.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도 확대되고 있다. 동사는 스마트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 환경, 제어, 경영 데이터를 활용해 시공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 기반 탄소배출량 관리 플랫폼과 같은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는 향후 단순 시공 매출을 넘어 유지관리, 운영 컨설팅,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 스마트팜 운영 데이터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 ■ 지식재산권 현황

동사는 스마트팜, 온실자재, 알루미늄 구조재, 수경재배, 양식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특히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온실 및 식물재배 시스템이다. 온실 지붕 구조, 경질필름 고정장치, 차광 시스템, 방충 구조, 흡통 및 선흡통 구조, 지주 조립체 등 온실 구조와 관련된 권리가 다수 확인된다. 이는 온실 설계·자재 제작·시공 전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적 보호막으로 기능한다.

수경재배 및 작물 재배 관련 권리도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수경재배시스템용 양액공급장치, 베드부재, 베드부재 이송장치, 식물재배장치, 엽다운 시스템을 이용한 재배장치, 식물 근권부 냉난방 관련 특허는 작물 생산성, 작업 효율성, 공간 활용도, 생육환경 제어와 관련된다. 이러한 권리는 동사가 단순한 온실 구조물 업체가 아니라 재배 시스템까지 포함한 스마트팜 솔루션 기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해외 및 특수기후 대응형 권리도 확인된다. 사막지역 식물재배용 온실의 반밀폐형 공조시스템, 응축수 재활용 시스템, 사막지역용 식물재배 시스템, 고온다습 및 취약지반용 작물 재배시스템 등은 해외 수출형 스마트팜 모델과 연계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냉방, 수자원 재활용, 열교환, 지반 안정성 등은 해외 프로젝트에서 중요도가 높은 요소로, 동사의 해외 사업 추진 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온실용 알루미늄 프레임, 빗물받이용 선흡통, 지붕 서까래 프레임, 필름커버, 조립온실, 알루미늄 압출바, 식물 재배용 베드 및 포트 등에 대한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고, 디자인권은 제품 형상과 외관 보호에 초점이 있으며, 온실자재 및 알루미늄 압출 제품의 식별성과 모방 방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동사는 2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린테이너(GREENTAINER)’는 알루미늄 물류·컨테이너형 제품군과 연계될 수 있는 상표권이고, ‘주식회사 그린플러스(GREEN+)’는 회사 및 주요 사업 영역을 포괄하는 상표로 판단된다. 상표권은 기술 보호보다는 제품·서비스 식별성과 브랜드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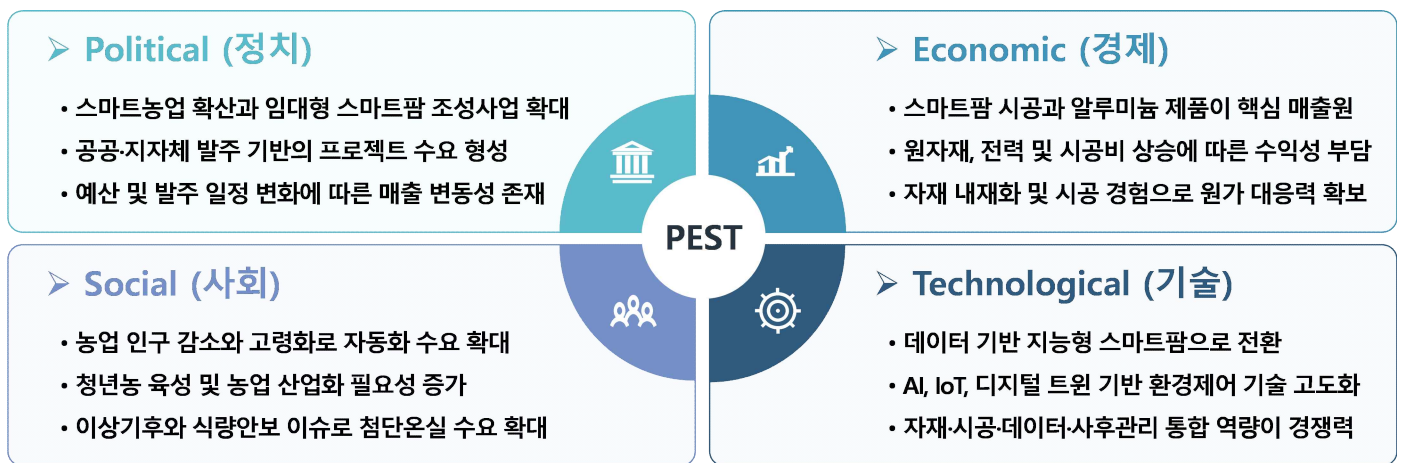
동사의 스마트팜 사업은 정부의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내 스마트팜 시장은 민간 농가의 자발적 투자만으로 성장하기보다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실증단지 조성 등 공공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을 통해 수요가 형성되는 구조다. 이는 동사에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동시에 예산 편성, 정책 우선순위, 발주 일정 변화에 따라 매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환경은 기회 요인과 의존 리스크가 병존하는 구조로 판단된다.

스마트팜 시공 프로젝트와 알루미늄 압출재 판매를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하므로, 공공 투자 규모, 농업법인의 시설투자 여력, 원자재 가격, 전력요금, 건설·시공비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스마트팜 시공은 프로젝트형 매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수주 시점과 기성 진행률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알루미늄 사업은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 상승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면 농업 자동화와 시설원예 고도화 수요가 지속될 경우, 동사의 온실자재 내재화와 시공 경험은 원가 대응력과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노동력 부족은 스마트팜 시장 확대의 핵심 사회적 배경이다. 기존 농업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생산성과 노동 효율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청년농 유입과 농업의 산업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동화·데이터 기반 농업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와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첨단온실과 통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농가의 ICT 활용 역량과 초기 투자 부담은 스마트팜 확산 속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스마트팜 기술은 단순 원격제어 단계에서 환경·제어·생육·경영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운영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온도, 습도, 광량, 양액, 이산화탄소 등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기술과 결합해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동사는 스마트팜 시공 경험, 알루미늄 온실자재 생산 능력, 자회사 운영을 통한 실증 데이터 확보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향후 경쟁력은 단순 시공 실적보다 자재·시스템·운영 데이터·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합하는 역량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 IV. 재무분석

### 스마트팜·알루미늄 기반 매출 확대와 재무구조 재편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588.7억 원, 2024년 876.8억 원, 2025년 1,057.2억 원을 기록하며 알루미늄과 스마트팜 부문 중심으로 외형이 확대되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2025년 매출원가율 상승과 영업외 비용 부담으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26년 1분기에는 비용 효율화로 전년 동분기 대비 순이익이 흑자 전환하였다. 재무안정성 측면에서는 차입금 영향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단기 유동성과 차입금 관리 부담이 확대되었다.

#### ■ 스마트팜 중심 외형 성장 흐름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588.7억 원, 2024년 876.8억 원, 2025년 1,057.2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0.6%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주요 사업부문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알루미늄사업]은 '압출' 매출이 2023년 273.1억 원, 2024년 312.8억 원, 2025년 340.8억 원으로 증가하여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가공' 매출은 2023년 34.9억 원, 2024년 25.8억 원, 2025년 31.3억 원으로 2024년 감소 후 일부 회복되었다. [온실사업]에서는 '온실자재' 매출이 2023년 83.0억 원, 2024년 198.1억 원, 2025년 163.4억 원으로 2024년 크게 증가한 뒤 2025년에는 감소하였으나, '온실시공' 매출이 2023년 178.6억 원, 2024년 252.2억 원, 2025년 416.1억 원으로 확대되며 전체 매출 성장을 주도하였다. [양식사업(장어)] 매출은 2023년 11.3억 원, 2024년 60.2억 원, 2025년 54.3억 원으로 2024년 급증 후 감소하였고, [작물재배사업(딸기 및 엽채류)] 매출이 2023년 7.5억 원, 2024년 27.7억 원, 2025년 49.8억 원으로 확대되어 종속회사 매출 기여도가 높아졌다. 그 외 호주 [온실사업] 매출액은 2023년 0.3억 원, 2024년 미발생, 2025년 1.5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315.6억 원으로 전년 동분기(220.8억 원) 대비 43.0% 증가하였으며, 스마트팜 및 양식 사업부문이 성장을 견인하였다. 종합적으로 동사는 스마트팜 사업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매출흐름은 대규모 수주잔고 기반 스마트팜 국내 프로젝트의 진행률, 해외 스마트팜 매출 인식, 알루미늄 압출 매출의 안정적 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 ■ 매출 확대 및 고정비 부담 완화로 2026년 1분기 수익성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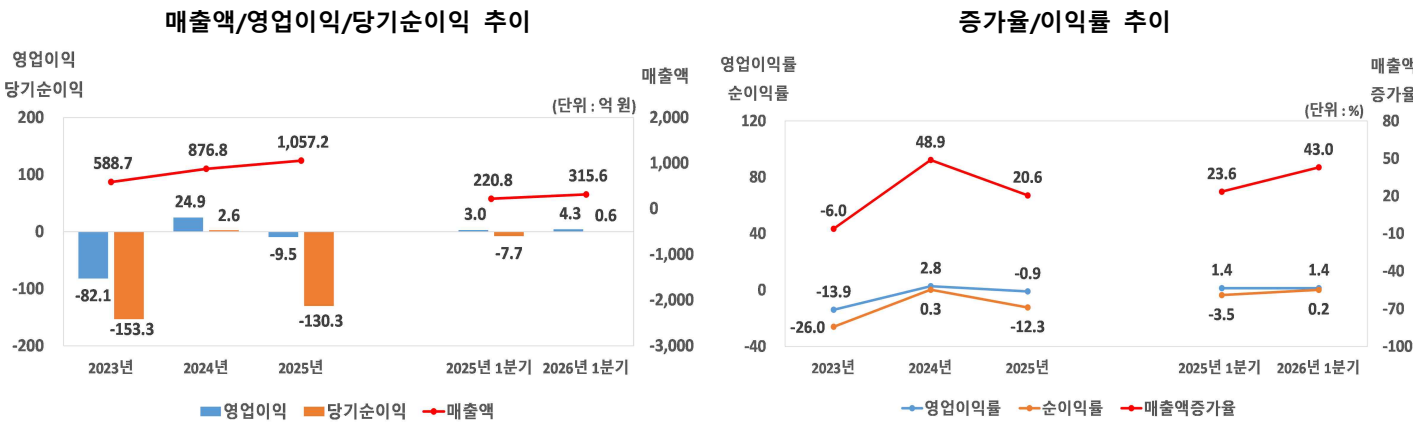
동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82.1억 원, 2024년 24.9억 원, 2025년 -9.5억 원으로 변동하였다. 영업이익률은 2023년 -13.9%, 2024년 2.8%, 2025년 -0.9%로, 2024년에는 매출 증가와 원가 구조 개선으로 흑자 전환하였으나, 2025년에는 매출 확대에도 매출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매출원가율은 2023년 97.1%, 2024년 85.7%, 2025년 92.0%로 2024년에 크게 개선된 뒤 2025년에 다시 상승하였다. 반면 판관비율은 2023년 16.8%, 2024년 11.5%, 2025년 8.9%로 낮아져 매출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었다. 판관비에 포함된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24.4억 원, 2024년 35.7억 원으로 증가한 뒤, 2025년 10.9억 원 으로 감소하였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153.3억 원, 2024년 2.6억 원, 2025년 -130.3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은 영업이익 흑자전환과 함께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2025년에는 당기순손실로 변동하였다. 유형자산손상차손(82.5억 원) 및 생물자산폐기손실(30.2억 원)와 같은 일시적인 기타비용이 대규모 발생하며 적자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양식사업 부문(그린피시팜)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작물재배사업 부문(그린케이팜)의 구조조정을 통해 손실 사업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4.3억 원, 당기순이익은 0.6억 원으로 전년 동분기(영업이익 3.0억 원, 당기순손실 7.7억 원)대비 매출 상승 효과로 순이익 흑자 전환하였다. 종합적으로 동사의 수익성은 2025년 원가율 상승 및 영업외비용 부담으로 약화되었으나, 2026년 1분기에는 고정비 및 영업외비용 부담이 완화되며 개선되었다. 향후 대규모 수주 잔고 기반 매출 확대를 통한 원가율 안정 및 비용 효율화가 병행될 경우, 수익성 지표 향상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 신종자본증권 발행하여 자금 조달

동사의 3년간 총자산은 2023년 972.5억 원, 2024년 1,013.5억 원, 2025년 968.2억 원으로 나타났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 89.4억 원, 2024년 90.9억 원으로 증가한 후, 2025년 74.0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유형자산 역시 2024년 595.8억 원에서 손상차손 영향으로 2025년 510.2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장어 및 딸기 등의 생물자산은 2024년 29.1억 원에서 폭우 영향으로 2025년 10.0억 원으로 줄어들어, 일부 자산 축소 및 재정비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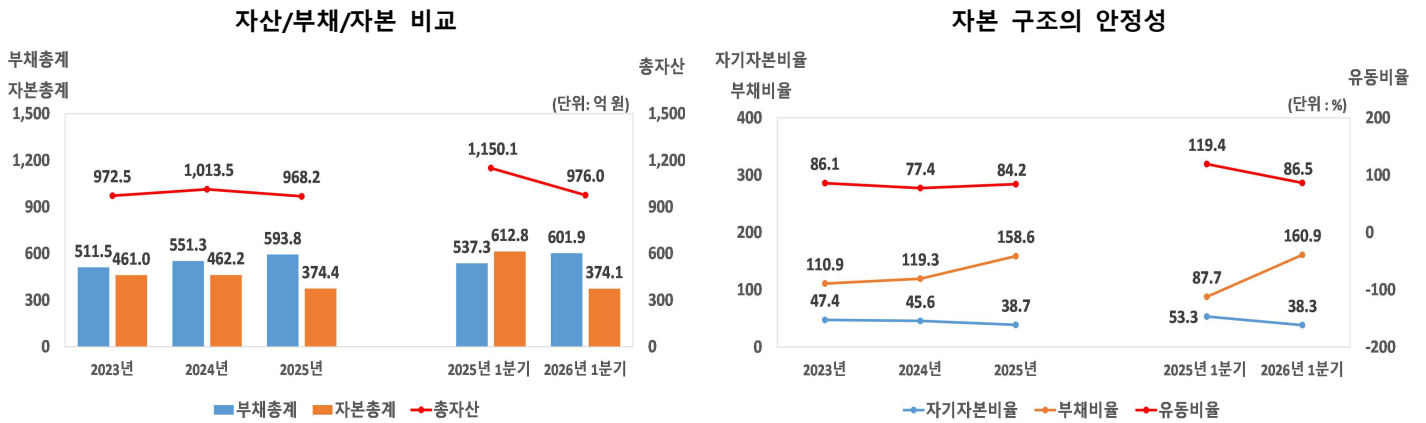
부채총계는 2023년 511.5억 원, 2024년 551.3억 원, 2025년 593.8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부채비율은 2023년 110.9%, 2024년 119.3%, 2025년 158.6%로 상승하였다. 2025년 기준 단기차입금은 241.4억 원, 유동성장기부채는 26.9억 원, 장기차입금은 89.8억 원, 전환사채는 58.4억 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자본총계는 2023년 461.0억 원, 2024년 462.2억 원, 2025년 374.4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2025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이 153.8억 원 증가하였으나,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영향으로 117.9억 원의 자본 축소가 있었다.

2026년 1분기 핵심 재무지표는 유동비율 86.5%, 부채비율 160.9%, 자기자본비율 38.3%를 기록하였다. 종합하면 스마트팜사업부 중심의 매출 확대 계획과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보강 효과를 바탕으로 수주 물량의 안정적 매출 인식과 영업활동현금흐름 회복이 나타날 경우, 재무안정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588.7	876.8	1,057.2	220.8	315.6
매출액증가율(%)	-6.0	48.9	20.6	23.6	43.0
영업이익	-82.1	24.9	-9.5	3.0	4.3
영업이익률(%)	-13.9	2.8	-0.9	1.4	1.4
순이익	-153.3	2.6	-130.3	-7.7	0.6
순이익률(%)	-26.0	0.3	-12.3	-3.5	0.2
부채총계	511.5	551.3	593.8	537.3	601.9
자본총계	461.0	462.2	374.4	612.8	374.1
총자산	972.5	1,013.5	968.2	1,150.1	976.0
유동비율(%)	86.1	77.4	84.2	119.4	86.5
부채비율(%)	110.9	119.3	158.6	87.7	160.9
자기자본비율(%)	47.4	45.6	38.7	53.3	38.3
영업현금흐름	-48.3	43.3	-20.5	-57.6	-40.2
투자현금흐름	-38.7	-42.2	-27.7	-8.6	-0.1
재무현금흐름	35.4	0.2	31.2	138.3	13.8
기말현금	89.4	90.9	74.0	162.9	47.5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부문별로는 국내외 온실 사업이 속한 온실 사업의 성장 기여도가 가장 크다. 온실 사업 매출은 2023년 261.9억 원에서 2025년 581.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에는 816.6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 시공은 공공 발주, 지자체 임대형 스마트팜, 민간 농업법인 투자 수요와 연계되는 프로젝트형 사업이므로, 2026년 실적 개선은 기존 수주잔고의 매출 인식과 신규 프로젝트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알루미늄 사업은 안정적인 기반 사업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매출은 2023년 308.0억 원에서 2025년 372.1억 원으로 완만히 증가했으며, 2026년에는 3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알루미늄 사업은 온실자재 내재화와 외부 산업재 판매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온실 사업 확대와 일정 부분 시너지를 형성한다. 다만 원재료 가격, 전력요금, 산업재 수요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어, 외형 성장보다는 안정적 매출 기반과 원가 대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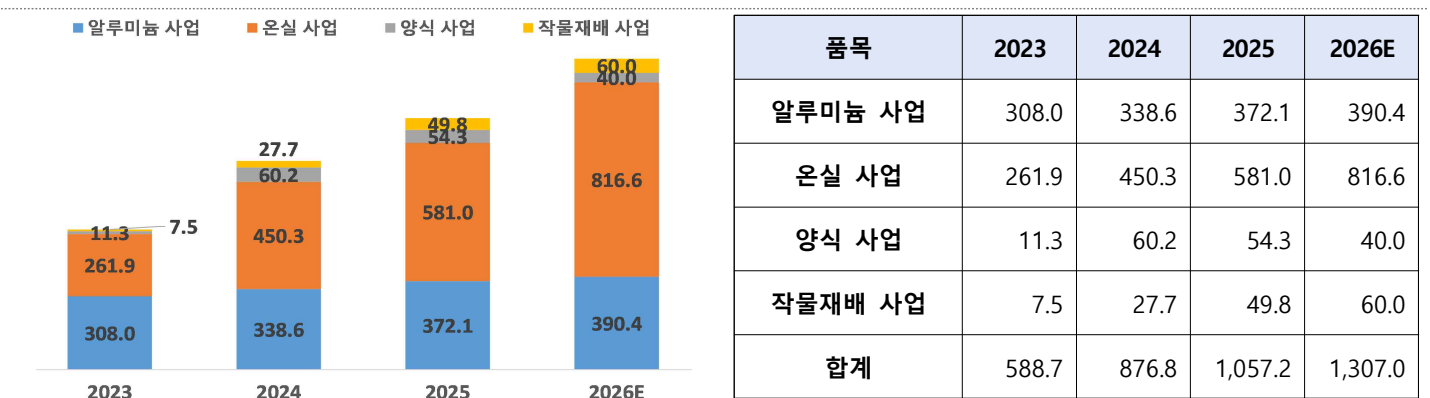
양식 사업은 2024년 60.2억 원까지 확대된 이후 2025년 54.3억 원, 2026년 40.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당 사업이 동사의 핵심 성장 축이라기보다 스마트팜 운영 경험과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는 보조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작물재배 사업은 2023년 7.5억 원에서 2025년 49.8억 원으로 성장했고, 2026년 60.0억 원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작물재배 사업은 매출 규모는 제한적이나, 스마트팜 운영 데이터 축적과 재배 기술 검증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온실 시공 사업과의 연계 가치가 있다.

실적 전망의 핵심은 온실 사업의 고성장 지속 여부다. 2026년 예상 매출 중 온실 사업이 약 6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의 매출 구조가 알루미늄 중심에서 스마트팜 온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온실 사업은 수주와 공정 진행률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공공 예산 집행 지연, 원가 상승, 공사 일정 변동이 실적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2026년 외형 성장은 가능성은 높은 편이나, 수익성 개선은 수주 단가, 자재비 통제, 공정 관리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동사는 2026년에도 온실 사업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알루미늄 사업은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작물재배 사업은 실증 및 운영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보조적 성장축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반면 양식 사업 축소는 비핵심 사업의 불확실성을 보여준다. 향후 동사의 실적은 온실 수주 확대, 프로젝트 매출 인식 속도, 원가 관리, 작물재배 사업의 수익화 여부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 스마트팜 시공 역량 기반 알루미늄 산업재와 해외 기후 대응형 온실 시장으로 다변화 시도 중

동사는 스마트팜 첨단온실 시공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알루미늄 산업재와 해외 기후 대응형 온실로 성장 축을 다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공·지자체 중심의 스마트팜 프로젝트 수요가 주요 기반이며, 알루미늄 사업은 방산, 발전소, 전기차, 중동 에너지 인프라용 자재 수요가 부각되면서 기존 범용 압출재 중심에서 고부가 산업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해외 스마트팜은 실증 경험과 고온 지역 대응 기술을 바탕으로 동남아·중동 등 적도 벨트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다만 공공 발주 의존도, 프로젝트 원가 상승, 해외 현지화, 자회사 손익 안정화, 전환성 증권에 따른 잠재 희석 가능성은 향후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로 판단된다.

#### ■ 최근 변동사항

동사는 2025년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목적에 농산물 유통, 리서치·컨설팅 및 연구개발, 교육지원 서비스가 추가되었고, 이는 스마트팜 시공 이후 장비 운영, 재배기술 지도, 교육, 컨설팅 등 후속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려는 방향으로 판단된다. 관련하여 동사는 교육 콘텐츠, 운영 플랫폼, 전문 인력 확보를 추진 중이다.

알루미늄 사업에서는 방산, 발전소, 전기차 및 중동 에너지 인프라 수요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동사는 방산 및 발전소 관련 알루미늄 수요 증가로 추가 공급 요청을 받았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판매가를 인상하였으며, 중단됐던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사업도 재개하였다. 이는 알루미늄사업이 기존 범용 압출재 중심에서 방산·전기차·에너지 설비 등 고부가 산업재 수요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외 스마트팜 사업에서는 적도 벨트 시장 공략이 새로운 전략 축이 될 전망이다. 동사는 고온 지역에서 온실 내부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적외선 차단 피복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호주 첨단 딸기 온실 프로젝트와 아랍에미리트 적외선 차단 피복제 실증 테스트를 통해 동남아시아, 중동 등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는 국내 공공·민간 스마트팜 시공 중심 사업에서 고온·아열대 기후 대응형 수출 모델로 사업 범위를 넓히는 변화로 해석된다.

#### ■ 향후 전망

동사의 향후 성장 방향은 국내 스마트팜 시공, 해외 기후 대응형 스마트팜, 알루미늄 산업재 수요, 사후관리형 서비스 사업의 네 축으로 정리된다. 국내에서는 지자체·공공기관 중심의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농 스마트팜 수요가 지속될 경우 동사의 시공 실적과 온실자재 내재화 역량이 수주 경쟁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프로젝트형 사업 특성상 발주 시점, 공정률, 기성 청구, 공공 예산 집행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 수주 확대보다 공정 관리와 원가 통제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스마트팜 사업은 중장기 성장 여지가 있으나, 검증과 현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적도 벨트 국가는 고온·다습 환경, 농업 생산성 개선 수요, 고부가 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기회 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지 기후, 물류, 인허가, 운영 인력, 유지보수 체계가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 동사의 적외선 차단 피복제, 복합환경 제어 기술, 고온 대응형 온실 설계가 실증 단계에서 성능을 입증할 경우 해외 프로젝트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안정적 반복 수주로 연결될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알루미늄 사업은 수익성 회복의 보조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방산, 전기차(EV), 발전소, 중동 에너지 설비용 알루미늄 수요는 기존 범용 압출재 대비 제품 단가와 수요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며, 판매가 인상 효과가 반영될 경우 원가 부담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 전력요금, 고객사 양산 일정, 방산·에너지 프로젝트의 실제 발주 여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 알루미늄 사업의 실적 개선은 수요 다변화와 가격 전가력 확보 여부가 핵심 변수로 판단된다.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된 교육지원, 컨설팅, 연구개발, 농산물 유통은 동사의 사업모델을 시공 중심에서 운영지원형 구조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다. 스마트팜 고객은 시공 이후 장비 운영, 작물 재배, 환경제어, 생산성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사가 시공 경험과 자회사 운영 데이터를 결합할 경우 후속 서비스 매출을 창출할 여지가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인력 확보, 콘텐츠 개발, 운영 플랫폼 구축, 고객 과금 모델 정립이 필요하므로 초기에는 사업화 속도와 수익성 검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동사는 스마트팜 시공 중심의 기존 강점을 유지하면서 해외 기후 대응형 온실, 알루미늄 고부가 산업재, 운영지원 서비스로 성장 축을 다변화하고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국내 수주잔고의 안정적 매출화, 해외 실증의 상업화 전환, 알루미늄 사업의 가격 전가 및 수요 다변화, 자회사 및 신규 서비스 사업의 수익 안정화다. 반면 공공 발주 의존도, 프로젝트 원가 상승, 해외 현지화 리스크, 전환성 증권에 따른 잠재 희석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인으로 판단된다.

## 그린플러스(186230)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05.21)

###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그린플러스	X	X	X